

중소가전업체, 특허분쟁으로 몸살

올들어 중소 가전업체의 특허분쟁이 잇따르면서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 또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특허소송에서 특허획득 제품이 무효로 판정되는 비율이 40~50%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특허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후발업체들이 특허주장업체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변형(modify)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후발업체간 특허싸움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내용도 김치냉장고·화장품냉장고·반찬냉장고·식기세척기·가스보일러 등 가전제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업체간에 발생하는 특허분쟁은 최소 1000만원 가량의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정상업무 외의 업무에 인적자원을 소모케 하는 한편 영업업무의 지장까지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허분쟁 현황=연간 1조원 규모의 김치냉장고를 둘러싼 특허분쟁을 시작으로 화장품냉장고·반찬냉장고 등 기능성냉장고 업체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만도공조와 태영전자·센추리간에 지난해부터 끌어온 특허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며 이르면 올해안으로 심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화장품냉장고업체도 세화와 성민테크놀러지가 매직아트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가운데 2년간 지루한 소모전을 지

켜보고 있다.

제3의 기능성냉장고로 주목받는 반찬냉장고도 한패상사가 지난 9월 실용신안 특허권을 주장하며 투인정밀을 비롯한 대우전자·하츠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이들 업체도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식기세척기·가스보일러 등 생활가전업체로까지 특허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양매직과 파세코가 살수구동부, 집수실 구조 등 식기세척기의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논쟁을 펼치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일러업계의 경우 린나이코리아와 경동보일러가 3년째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들어 롯데기공과 린나이의 싸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보일러업체가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발생원인 및 대책=이처럼 신홍시장으로 떠오르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특허싸움이 잇따르는 최대원인은 모방제품을 내놓은 후발업체들이 연구개발로 제품을 첫 출시한 업체들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신규 후발업체가 특허침해 여부를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드는 행태도 소송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심판을 받거나 권리범위가 부실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갖고 있는 특허업체들이 그동안의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는 사례를 만들어왔던 것도 한몫했다.

이는 자연 "후발업체의 시장참여 →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 특허무효소송"이라는 악순환을 낳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특허출원 건수기준으로 세계 4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무효가 되는 비율이 40~50%에 달하고 있다. 탐특허사무소의 한 변리사는 “이른바 미 투 (me too) 제품을 통해 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업체들의 마인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전제한 뒤 “특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혈연”지연에 없매이지 않고 부문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특허 물량경쟁, 정력 낭비 해외 출원만 기운 못차려”

“국내 대기업들이 다출원 물량 경쟁에만 치우쳐 정작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

특허청 주최로 열리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설명회”에서 박윤성 특허청 출원과 심사관이 준비한 “해외 특허출원 전략과 PCT”라는 주제발표문의 요지다.

박 심사관은 “우리 대기업들은 국내 출원 시 다출원 물량 경쟁에만 치우친 무전략·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에 출원한 특허 중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포항제철은 국내 출원이 2692건에 달했으나 미국 출원은 전체의 0.55%에 불과한 15건에 그쳤으며, 기아자동차는 1068건의 국내 출원 중 1.6%인 16건만을 미국에 출원하는 등 출원률이 저조했다.

LG전자는 7152건의 국내 출원 가운데 8%에 못미치는 540건을 미국에 출원했으며 하이닉스반도체는 3306건 가운데 101건을, 현대자동차는 4189건 가운데 100건만을 출원하는 데 그쳤다.

특히 외국에서의 특허 획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PCT 국제출원은 삼성전자가 81건,

LG전자 71건, 하이닉스반도체 3건 등이며 이들 3사를 제외하고는 삼성전기·현대자동차·LG필립스LCD·삼성SDI·삼성광주전자·기아자동차·만도·대우전자 등 8개 국내 유명업체들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 심사관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 등 유럽 기업들은 지역 출원 시에도 개발된 모든 기술을 물량 위주가 아닌 전략적 토대 위에서 선별적으로 출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지멘스나 보쉬·BASF·바이에르 등은 국내 출원건과 미국 출원건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스위스의 노바티스는 오히려 미국 출원건보다 PCT 출원건이 앞서는 등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심사관은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 관행은 저비용·고효율의 특허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유럽 기업과는 달리 특허관리전략이나 특허경영전략이 결여된 고비용·저효율의 경영구조를 담보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특허경영전략과 적극적인 PCT 제도 활용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전자신문

북, "특허(特許)기술 무역" 적극 장려

북한은 국가간에 특허권을 사고 파는 이른바 '특허기술 무역'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라고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2002년 9월 29일)가 밝혔다. 신문은 이 특허기술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무역은 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이 무역은 화학, 금속공업, 의학, 경공업, 물리공학, 전기및 전자공학등 여러 분야에

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특허기술 무역은 21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발해 질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신문은 최근에는 발전도상 국가들도 이 특허기술 무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에관한 자국의 법령과 제도를 수정,보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분야 종사자들에 "자체의 과학과 기술을 적극 발전 시킬것"을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컴퓨터 프로그램, BM 특허 논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BM)의 특허성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20세기 대표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명령문과 데이터로 구성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눈에 보이는 기계도, 기술이 아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전통적인 특허법 논리에 맞지 않다. 이와 관련, 현재 유럽특허청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를 부여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드웨어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A기계의 작동원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특허대상은 A기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 하드웨어로 존재했던 많은 기계나 장치들이 근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화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개발돼 보급되고 있는 등 오늘날 모든 산업이 소프트웨어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프로그램 자체에도 특허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법원의 1998년 SSB사건 판결은 뮤추얼 펀드 관리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데이터를 입력해서 보다 유용한 결과물(데이터)을 산출할 뿐 어떤 물질의 물리적 변화가 없는 데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성이다.

SSB 판결은 뮤추얼 펀드 관리 및 시가산출 프로그램의 특허를 인정한 것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뮤추얼 펀드와 관련한 영업방법(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허대상 확대와 관련해 핵심 관심사 중에는 'BM발명이 있다.

여기서 BM은 비즈니스 모델과 영업방법(Business Method)이란 두가지 용어가 혼용 사용돼 왔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를 영업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BM발명은 대부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BM발명이 특허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대상인가의 문제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BM발명은 '컴퓨터 또는 인터넷·네트워크 등의 IT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BM 특허에 관한 각 나라 사법부와 특허당국의 입장은 특허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최근 WIPO의 특허대상 확대논의와 맞물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말聯,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

우리나라 특허청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 심사업무를 대행기로 했다.

또 한국인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특허출원할 경우 한국특허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무심사 등록된다. 김광립 특허청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무하딘 말레이시아 유통소비자부 장관과 특허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간특허협력방안에 합의했다. 이 협력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청은 말레이시아 특허청의 전산시스템 개발지원을 위해 IT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특허청 공무원의 연수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무심사등록대상국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유럽특허청이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이 5번째로 지정됐다.

우리나라가 외국정부로부터 무심사등록대상국가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국민의 말레이시아의 특허출원은 연간 100여건으로 이번 합의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번 말레이시아와 특허협력 체결이 외국특허청의 심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외화 획득을 얻게 됐을 뿐 아니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지역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와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경제

하나銀, 특허취득... 은행상품도 특허시대

하나은행은 하나의 통장으로 고객의 거치식 예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치식 예금 정보 관리 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이번 특허는 금융부문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 출원에서는 최초의

등록특허로서 기존의 거치식 예금정보는 거래 계좌별로 예금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다수의 예금 계좌를 1개의 통장으로 통합관리하여 예금별로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만기예금이 자동해지돼 지정된 모계좌에 자동 입금이 되는 만기자동관리 기능을 통해 예금해지를 위해 은행창구를 고객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특허내용을 활용해 1999년에 목돈을 불리는 통장, 2001년에 엠브렐러 투자예금을 판매한 바 있으며 향후 금융상품의 방향이 개별상품 위주의 거래에서 자산종합관리 서비

스로 발전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번 특허취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특히 타기관들의 유사서비스가 특허내용을 침해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또 지금까지 은행권의 특허취득은 서울은행이 94년에 취득한 휴대용 카드 및 그 이용방법에 대한 건 등 2건에 그치고 있어 이번 특허취득이 신상품 및 신기술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에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지렁이 이용 환경오염 처리기술 특허 “붓물”

최근 들어 지렁이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환경오염처리기술이 기존 매립 또는 소각처리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특허의 출원이 붓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지렁이 이용 유기성폐기물 처리기술 중 공개된 것은 모두 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유기성 폐기물 처리기술은 1997년 이전까지는 총 8건에 출원되는데 그쳤으나 1998년 5건, 1999년 11건, 2000년 20건 등 해마다 100%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10월 말까지 공개 분)에도 각각 7건과 5건이 출원됐다.

이들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 등 처리과정을 거쳐지렁이에게 먹인 뒤 지렁이의 배설물인 분변토로 양질의 비료 및 토양 개량제를 생산하거나 사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 이외에 지렁이는 악취제거와 폐수처리에도 이용돼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 암모니아를 흡착 제거하는 등 악취제거 기술이 20건, 폐수를토양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지렁이를 이용하는 등 폐수처리 기술이 9건 각각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지렁이를 이용, 분뇨량 1만5천톤 중 3천500톤을 자체 처리해 2억원이 넘는 예산절감효과를 봤다”며 “지렁이를 이용한 환경오염 처리방법은 소각 등 다른 방법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낮고 부작용이 없으며 분변토를 통한 부수익을 얻을 수 있어 더욱 각광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